



대선 전국 민심 기행

④ 광주·전남, 영남, 강원, 제주

“범여권 뭉쳐야제” “한나라 이번에는…”

광주·전남

“당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애. 원래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했는데 낙마하고 나니 영 눈길이 안간다. 하지만 범여권 후보 단일화는 꼭 이뤄져야지. 그래야 관심도 높아질 것 아니야”(유영식·50·광주K택시 운전사)

호남 민심은 여전히 광망 중이다. 대선이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열기와 관심은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다. 강한 응집력과 ‘전략적 선택’으로 선거판의 흐름을 바꿔버린 지난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 대선 때와는 사뭇 다른 표정이다.

대통합신당 대선 후보로 정동영 후보가 확정되면서 호남 지지를 판관과 아연 달라지고 있지만 그의 상승세는 범여권의 지지 기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어 놓으려는 평가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도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일보가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전국 8개 유력 지방일간지와 공동으로 지난 15~17일 실시한 ‘제3차 대선 공동여론조사’ 결과 정동영 후보는 40.4%를 얻어 15.5%에 머문 이명박 후보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인재 민주당 후보는 14.4%, 문국현 창조한국당(가칭) 후보는 7.3%,

정동영 ‘쏠림’ 현상 아직은…

이명박 두 자릿수 지지율 유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3.5%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화운동과 경제개발 과정의 낙후, 소외로 인해 공고하게 구축됐던 반(反) 한나라당 정서도 떠나지는 추세다. 20년 가까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한나라당 지지도는 지난해 12월 광주일보·한국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마(魔)의 10%’ 벽을 깨뜨리며 13.3%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를 지켜가고 있어 정치적 편향성이 완화되는 추세다.

과거 호남에서는 좁처럼 듣기 어려웠던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여수지역 공무원 최모씨는 “지금 추세로 보면 지지를 격차가 워낙 커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명박 후보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 정권을 내줘선 안된다는 반감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민심의 ‘.LEADING’은 범여권 대통령 쪽으로 눈금이 기울어져 있다. 정동영, 이인재, 문국현 후보의 극적인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류동훈 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무처장은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역민심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이명박 후보와 호남 출신 차세대 지도자인 정동영 후보에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범여 대통합에 대한 열망이 높아 이명박 후보에 맞설 수 있는 후보를 향해 다시 민심이 결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부산·경남

부산은 ‘한나라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한나라당의 덫세가 강한 곳이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들은 한나라당 일색이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이 늘 60%를 상회한다.

때문에 대선을 향한 민심이 한나라당으로 치우친 건 필연적 현상. 특히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대한 반발 심리와 참여정부에 대한 반감이 중첩되면서 ‘변화’를 찾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깔려 있다.

“노무현 정부가 ‘좌파’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나 같은 ‘밑바닥 인생’은 형편이 나아져야 할 것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명박이란 사람, 잘은 모르지만, ‘일거리’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찍을려고…” 환경미화원 김모(63)씨의 말이다.

부산지하철 1호선 연산동역 도로변에서 만난 개인택시 기사 이모(53)씨도 “도덕성이 차후 문제고, 일단 경제를 살릴 사람에게 투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로 옮겨가는 기현상도 나타난다. 물론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진보개혁 세력의 집권을 바

“참여정부서 나아진 것 전혀 없어

경제 제대로 살릴 후보 찍을 것”

라는 민심도 상존한다.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여온 경남지역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재현하고 있다. 이같은 높은 지지에는 침체된 경제의 회복이란 일반적 기대와 함께 ‘호남에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지역정서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경남의 한나라당 지지층은 노무현 대통령이 경남 김해 출신이지만 참여정부가 호남에 뿌리를 둔 ‘호남 정권’이란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한나라당 지지층은 이 후보와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정권 탈환’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높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초반에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다 선거판坛 각종 여론몰이 등으로 폐배한 학습효과 때문에 불안감도 있다.

이에 반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범여권의 문국현 후보,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아직 경남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의 역대 선거를 분석해보면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세력은 40~50%, 범여권세력 15~20%, 민주노동당 중심의 진보세력 10% 등으로 분포돼 있으나 현재 신당의 지지세는 여기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김기진기자 kkj99@busanilbo.com
/경남신문=이상규기자 sklee@knnews.co.kr

대구·경북

한나라당의 덫바탕이 할 수 있는 대구·경북의 대선민심은 이명박 후보에 놀려움으로 전락했다. 대구에서는 한나라당 독주체제에 큰 변함이 없는 듯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구는 경북과 함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인바 있다.

지난 26일 대구 최대 변화기인 동성로에서 만난 40대 시민은 “지난 정권들이 대구를 수십년간 버렸다”는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대구의 위상은 고사하고 멀고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도시가 대구”라면서 “철저한 지역주의에 빠진 정권들의 그릇된 정책에 대구가 가장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50대 주부는 “한나라당이 두번 실패를 겪으면서 크게 성숙했을 것이

“지난 정권들 대구 철저히 버렸다”

한나라 쏠림 과거 대선보다 심화

다. 지난 대선 때 현정권을 믿었지만 역시나 였다”면서 “이번 대선에는 꼭 한나라당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들이 시민들에게 전해들은 민심 역시 대동소이했다. 개인택시를 하는 박철원(56)씨는 현재까지는 대구의 정치 민심이 한나라당에게 기울었다고 했다. 과거 대선 때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했다.

경북에서는 투자자문회사인 BBK 김경준 전 사장과 관련된 의혹들이 김 전 사장의 한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변화가 그 영향이 어느 쪽으로 뛸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와 확실한 관련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지를 철회하거나 관망세로 돌아설 유권자들이 많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범여권 지지성향의 한 유권자는 “여권이 경북에서 열세이나 범여권의 정동영 후보가 도덕성에서 이 후보보다 우위인 만큼 BBK 사건의 사실여부에 따라 대반전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대선판도가 의혹을 둘러싼 싸움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매일신문=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강원도

역대 대선에서 강원도의 표심은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기는 했으나 큰 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지난 16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이희창 후보 51.8%, 민주당 노무현 후보 40.9%의 득표율을 보여 8만여표 차이를 보였다.

강원 표심은 영·호남의 고착화된 표와는 달리 ‘주인 없는 표’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12월 대선은 50여 일 앞두고 있는 대내 표심은 역대 대선에서 볼 수 없던 1,2위간 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광주일보가 창간 62주년을 맞아 지난 17~20일 실시한 도민 의식조사 결과, 정동영 후보 13.3%, 이명

아직은 이명박 독주

정동영과 30% 격차

박 후보 46.3%로 30%이상의 지지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범여권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지지를 격차는 현재보다 좁혀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초반 승기를 12월 대선까지 이어가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한 선거전략이 아닌 자기기 위한 선거전략을 앞세울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역대 대선에서 18개 시·군중 접경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 반 한나라당 정서를 보이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도내 정치권에선 강원도 캐스팅 보트론’을 제기하며 변방의 강원도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 ‘황금분할’했던 강원도의 정치적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광주일보=정병철기자 choms@kwnews.co.kr

제주도

대선레이스에서 제주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지역적으로 가장 남쪽에 자리잡은 특성으로 있지만 그동안 선거에서 ‘대선 풍랑’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택시기사 김수훈(55)씨는 “경제와 정치간 전문성을 놓고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를 살피려 한다는 의견과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경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속내 감춘 냉랭한 민심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정치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하지만 뚱부리자기 지지 입장을 밝히는 승객들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류점 상인 김미희씨는 “갈수록 경기가 나빠져 임대료 내기도 버거운 형편”이라며 “누가 되더라도 진짜 경제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냉랭한 민심과 맞불려 대선주자들을 지지하는 온라인·오프라인 모임들도 아직까지 활동 반경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정당별로 지역별 대선 조직체계가 가능되면서 11월부터는 본격적인 대선레이스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kimth@jejunews.com



제16대 대통령 선거운동 막바지인 지난 2002년 12월 1일 부산역광장에 모인 부산 시민들이 한나라당 이희창 후보의 거리연설회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열려라! 2007여수생기박람회
펼쳐라! 미래강국, 해양대국의 꿈

www.kwnews.co.kr

한국여행관광협회
한국여행수출입국